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6 6 월호

우리의 참된 재산

〈성경/사도행전 3장 6절〉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사람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명예·지식·재산 등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애써 얻어보려는 재산들입니다.

이러한 재산 가운데에는 돈·건강·권세 등과 같이 있다가 곧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지식·기술·신용 등과 같이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없

어지지 않고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도 있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여 습득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얻은 재산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하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기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며 내 나라를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것이기는 하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재산 가운데 시간적으로 볼 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이 같은 재산은 아무리 많아 해도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와 죽음과 질병 등에는 아무런 힘도 될 수 없으며 영생을 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내게 귀한 재물이 남보다 많다 하여도 교만하게 되면 그 많은 재물이 도리어 걸림이 되고 내 재주만 믿고 안심하면 끝내는 불행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베드로 선생이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그 마음에 모시어 들이여 소유한 사람만이 진정한 뜻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욕심에 끌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위 환경의 유혹도 이길 수 있으며 불의한 세력에 결코 꺾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므로 참 사람다운 사람의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상·하와 선·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고 얻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분별하여 헛된 수고나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으므로 참 성공자가 됩니다.

베드로 선생은 인류역사의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베드로는 무식한 어촌 사람으로서, 바다에 나가 물고기나 잡아다 파는 어부였으며 성급하게 덤비기를 잘하고 걸핏하면 혈기를 부리는 출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삼은 후부터는 겁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대장부가 되었습니까. 누구라도 감히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무덤문이 열리기 전에 천국문이 열리어 부활하신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고 그로 내세에 있어서도 최고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비록 땅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며 악마의 종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지식·기술·명예 등과 같이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많이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간적인 소유물들이 비록 많을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나치게 안심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의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많은 사람이거나 적은 사람이거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데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또 소유하시므로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능률하게 살아가며 지혜로운 인격자로서 성공의 복을 누리시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註): 지면관계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운동

6월은 우리 교회의 「총동원 전도운동」의 달이다. 이 달은 첫 주일이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로서 초대 교회의 생일이며 그 날이 전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 오늘날의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다. 또 그 날은 현충일로서 6·25 때 535명의 목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국군 용사들이 피를 흘린 순국, 순교의 날이기도 하다.

복음이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피위에서 성장하여 왔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여 온 것은 과거 성도들이 흘린 피의 거름(비료) 때문이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때론는 나라인 한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 듯이 보여지며 생의 후에인 한국에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 제사장 국가로서 나타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현대가 낳은 최대의 역사가 토인비의 동방에서 일어난 새로운 정신문화가 구라파의 물질문명을 주체해 주지 않으면 구라파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경고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우기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가 “오 코리아여! 그대 옛날에 아시아의 황금시절에 밝은 동물의 하나였도다. 이제 그대의 동물이 다시 밝혀지는 밝은 동방을 밝히 비치는 밝은 동물이 되리라”고 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보수 교단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총현교회(총현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센터로, 등남아의 제2의 안디옥교회, 세계의 제사장 교회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이 시대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 교회를 가운뎃는 대교회로서의 자만심 때문에 더 성장 못하는 이들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교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연교”고 했고, 교단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있는 자들을 무고롭게 하려 하시니 세상 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무고롭게 하려 하신다”고 했다. 서양 선교의 실패의 제일 큰 원인이 그들의 우월감, 교단 때 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하게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간)

월간 총현

6월의 행사

- 6/제직회 · 남전도회 임원회 · 권사회 임원회 · 재정위원회
- 8-10/일만교회운동 특별집회
- 13/남전도회 월례회 · 권사회 월례회 · 월간총현 편집위원회 · 여전도회 임원회
- 20/여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21/교육위원회
- 21-25/제2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 27/구역권찰회 · 주교 각부 월례회

6월호 차례

- 〈설교〉 우리의 참된 재산/김창인 목사..... 2
- 기획연재
- Ⅰ. 우리교회 전도기구 현황/오태용..... 6
- Ⅱ. 우리교회 전도인 훈련실태/오태용..... 8
- 〈제언〉 1976년 하반기행사에 붙여..... 4
- 〈선교는단〉 선교와 인간화/신성종 목사..... 14
- 〈영신도를 위한 신학해설⑥〉 교회란 무엇인가/이정웅..... 12
- 〈구역장 노우트⑤〉 구역집회 인도요령/백성룡 목사..... 15
- 〈서한문〉 군복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권대락..... 10
- 〈캠페인〉 총동원 전도운동..... 9
- 〈필립〉 평가회/정은표 집사..... 13
- 〈책소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정상우 목사..... 11
- 〈교회 뉴우스〉..... 16
- 〈기차적 · 편집후기 · 표지설명〉..... 18
- 〈화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 저모..... 19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K).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다 함께 땀시다

—여름 성경학교—

이 대 길

(유치부 교사)

해마다 그랬듯이 올해도 계절학교라는 흥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각부에서는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치밀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땀을 흘릴 수 있는 한 이 흥을 쉽게 칠 수 있도록 만반의 배치를 갖추고 있을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절학교가 남기고 간 뒷맛은 언제나 씁쓸하기만 하다. 어떻게 하면 이번 계절학교는 이 씁쓸한 맛을 좀 덜 할까?

먼저 계절학교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정보를 입수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계절학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미리 준비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교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사들에 대한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계절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몇몇 교사들에 의해 작성된 프로그램이 하루 이를 정도 행해지는 오리엔테이션 정도로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에게 계절학교를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번 하기 계절학교는 나 혼자 뛰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다 함께 뛰었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질과 양의 향상이 있기를 바란다.

정말 자랑스런 일

—농어촌 교회 지도자 훈련—

김 성 주

(유년부 교사)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년의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 훈련」을 관심 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저 피상적으로 느낀 몇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다.

우선은 나처럼 무관심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농어촌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온 교우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교회의 기도제목으로 삼아 행사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야겠다. 그리고 사전에 농어촌문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각종 농어촌 자료들을 수집하여 참고로 삼아 적절한 교과 과목과 강사가 선정되어야겠다. 이런 문제를 위하여는 전달기관의 설치도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이 행사가 단순한 서울 나들이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몇해 동안이라도 훈련받은 교회에 나타난 실제적인 성과에 대해 관찰하고 그 결과를 유익적 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겠다.

끝으로 우리 중원교회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해마다 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훈련하는 일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보다 효과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급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온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 교회지도자 훈련소와 같은 기구를 상설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사업계획을 위한 몇가지 제언

여름행사를 앞두고

정 은 표 집사

(회관 중원 간사)

『모르는 사이에 벌써 우리의 발걸음은 여름의 문턱을 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각 지회의 각종 행사가 피크를 이루며 교회로서는 연중 가장 바쁘고도 보람찬 때를 맞게 된다.』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 주일학교 각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하기 수양회」를 비롯하여 성경학원의 「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과 교회 전도위원회의 「농어촌 전도대 파송」등으로 우리교회 여름 행사를 크게 나누어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일련의 행사가 올해는 오는 6월 21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제2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시작으로 막을 열게 된다. 여기에서는 미흡하나마 보다 알찬 올해의 여름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거 각종 여름 행사에서 지적되고 또 제기되었던 제언들을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 주일학교의 여름 행사 □

「여름 어린이성경학교」와 「수양회」

- ①노회 강습회에 모든 교사들이 참가 하도록 한다.
- ②계절학교의 교과과정 작성이 시급하다. ③고질적인 교육장소 협소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④교사의 참석 정도에 따라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교사확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형태든 교사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⑤담당 임원들을 해당 업무별로 사전에 업무교육을 실시한다. ⑥절대 부족한 교육보조재의 확충과 장비의 사전점검, 확인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⑦I-부의 경우 6월 예정 공과를 4일로 단축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구성한다. ⑧수양회는 쓸데없는 장기자랑·운동경기·준극등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신앙생활 체험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⑨수양회 내용구성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단순·명료하여 집중적인 효과를 얻도록 한다. ⑩수양회는 강사일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자치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계획수립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⑪수양의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답사하고 계획을 세운다. ⑫수양의 기간중 교역자들이 다 당회원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도록 부탁한다. ⑬수양회 계획 하루 전에 심발대를 보낸다.

현지실정 파악이 열쇠

—농어촌 전도대 파송—

김 경 생
(유년부 교사)

『농어촌 전도』하면 작년에 파송받은 경북 예천의 금곡교회가 뇌리를 스쳐간다. 예년의 일을 거울삼아 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특히 유의하였으면 한다.

1. 대상지역과 파송 대원의 선정이 늦어도 일개월 전에 완료 되어야겠다. 작년만 해도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도 파송자가 확정되지 못하고 빈둥이 많아 대상지역을 파악하는 일보다는 누가 가느냐 하는 문제가 더 신경을 쓰게 하였다. 또 선정된 대원들에게는 파송지역의 주민수, 교파별 교회분포, 이단종파 유무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2. 전도대를 파송하는 교회나 파송받는 교회나 모두가 기도해야 할 일이다. 당회장 목사님의 『은 교우가 기도로 힘난다』는 격려 전보는 죽음을 각오한 전도의 힘이 생기게 하였었다.

3. 가지고 가는 장비의 완전성이다. 작년의 경우 환동기와 슬라이드는 있으나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아 고생을 하였다. 대사가 있으나 성경도 새번역으로 되어 「가버나움」을 「카파나움」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 바로 잡느라 고충이 컸었다. 이런 정도는 미리 녹음을 하였다가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정도만 해결되어도 올해의 농어촌 전도대 파송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든것 바쳐서

—여름 성경학교—

김 인
(청년부 회원)

성공적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먼저 무엇일, 어떻게, 얼마 동안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해 실시한 여름 성경학교 후에 어린이들의 가정생활·교회생활·사회생활 등에 변화가 있었으며 유익하였는가 하는 것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쳐겠다는 결심이라고 본다. 먼저 우리의 맘을 아낌 없이 바쳐야겠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들이 진정한 천국 일꾼으로 자라려면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인심으로 우리의 온몸이 맘에 흠뻑 젖을 때까지 뛰고 또 뛰어야겠다. 두께 우리의 시간을 아낌 없이 바쳐야겠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라면 다른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좀더 시간을 내어 가르칠 말씀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해 보며 출석은 물론 100%가 아니던 안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눈물을 아낌없이 바쳐야겠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또 열심을 내어도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올해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는 우리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눈물의 기도」 이것이 곧 성공의 처방이라고 본다.

□ 성경학원 □

제5회 농어촌교회 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제2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평신도 지도자 훈련: ①초청 대상자를 가급적 주교 지도자나 부장으로 하되 중졸 이상의 제직으로 한다. ②농어촌교회 부흥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③강사와 교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늦어도 개교 2개월 전에 신문물 통해 알리고 해당지역 노회와 협조한다. ⑤훈련생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참작하고 사후 훈련성과를 반드시 측정한다.

·교역자 초청훈련: ①농어촌교회 문제연구 전담기구를 상설한다. ②훈련기간중 우리교회 교역자들과 많은 접촉시간을 갖도록 한다. ③사명감이 투철한 교역자의 농어촌교회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들의 학비와 숙소를 제공하는 일을 강구한다. ④교역자를 위한 실제적인 과목을 보장하여 우리교회의 각종 의식을 슬라이드로 준비하였다가 소개한다. ⑤훈련 받은 교역자의 교회와 사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교회 주요행사에 그들을 초청·견학하게 한다.

*장로수양회·성가대 수양회는 지면상 생략합니다.

□ 교회 전도위원회 □

제5회 농어촌 전도대 파송

①「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훈련」과의 연관성을 위해 훈련자를 파송한 교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훈련 내용도 파송전도대 훈련내용과 연관 되도록 한다. ②현지교회와 파송전도대와의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교회와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함은 물론 가능하면 현지교회에서도 본교회 전도대와같은 시기에 현지 교회에서 현지교인 전도훈련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③농어촌의 생리, 특히 현지교회의 지리적·사회적·종교적 특수 여건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적합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전도대 훈련에 반영한다. ④전도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확실한 사람으로 조직하고 스스로 현지 교회를 조사·연구하여 전도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⑤전도장비의 기준 품목과 기준수를 결정하고 전도장비를 현대화할 것이며 장비사용 기술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⑥작업부 담당자별로 구분교육을 실시한다. ⑦현지교회가 자립적으로 결집자를 육성할 수 있을 때까지 사후에도 계속 원거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I. 우리교회 전도기구 현황

오 태 응
(월간 총원 간사·중등부 교사)

◇…… 6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이다. 전도하는 일에 있어 굳이 달을 가리며 날을 구별……◇
 ◇……지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복음전파의 사명은 언제, ……◇
 ◇……어디서, 누구에게나 먼저 부름받은 성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총동원 전도의 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6월에 붙여야만……◇
 ◇……했는지 그 까닭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당연지사이지만 우리교회는 교회 설립 이래 특히 전도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
 ◇……그러나 문제는 20여년이 지나 교인수가 크게 늘고 사회현상이 많이 변했지만 우리……◇
 ◇……교회 전도활동에 있어 상호협력방식은 예나 크게 다를바 없는 제자리걸음 상태라……◇
 ◇……는 점이다. 백명이 될 때나 천명이 될 때나 상호 협력적인 협력에는 아랑곳없이 몇……◇
 ◇……몇이 모여지면 발걸음이 달는 대로 전도의 행렬을 이어가는 그런 원시적인 전쟁형……◇
 ◇……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 시대에 적합한, 또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조정된 전도전략에 따라 복음전쟁의 총력전을 펴야 한다. ……◇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우리……◇
 ◇……에게 적절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앞으로 몇회에 걸쳐 우리교……◇
 ◇……회 전도활동의 이모 저모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

《앞으로 살펴 보려는 내용들》

- | | |
|-------------|-----------|
| • 노방전도·축호전도 | • 학원전도 |
| • 농어촌전도 | • 특수전도 |
| • 개척교회 | • 방송·문서전도 |
| • 군인전도·산업전도 | • 해외전교 |

아무리 적게 모이는 교회라 한지라도 그것이 교회인 한은 꼭 전도부가 있게 마련이다. 규모에 따라서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총리되어 있고 또 각부 주일학교에 면려활동으로 전도부가 있게 된다.

우리 교회의 전도기구를 살펴 본다면 먼저 주일학교에서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에 각각 면려회 전도부가 조직되어 있고 장년층을 주축으로 남·여 전도회가 있으며 국외 선교를 담당하는 해외복음선교회가 별도로 있다. 이런 정도야 거개의 교회가 다 갖추고 있는 전도기구들일 것이다. 그러나 교인수 5천이 넘는 메머드 교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각 전도지회의 조직만 가지고서는 효과적인 전도활동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 눈을 뜬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부터 「전도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면 각 전도기구의 현황을 대충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이 금년에 새로 발족된 「전도위원회」이다. 남·여 전도회, 해외복음선교회, 및 주일학교 각부의 면려회 전도부 등이 각각 제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살려 전도에 온 힘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산된 전력을 보다 유효적절하게 통합하는 기관이 없어 허다한 문제와 애로점들이 노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들 전체를 총괄해서 전도임무를 연구·조정·지휘함으로 힘의 분산을 막고 한결을 나아가서는 각 지회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전도 전략과 방법 등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전도위원회」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의 어떤 인사(人士)도 총원교회의 전도 현황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게 정직한 말일 것이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하는 식의 핑계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전도위원회」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하여 현대교회가 지향하는 효과적인 전도방법 등을 모색·연구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6월까지 현황 파악을 하고 후반기부터는 구체적인 전도전략 연구를 하여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전도위원회」가 전도의 사령탑 구실을 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담당 지도인 정기성 목사는 말한다.

조직으로는 ①외지 분과: 외국 선교·해외 지교회 담당 ②내지 분과: 개척 전도·학원 전도·군 전도 담당 ③특수 분과: 교회내 총동원 전도운동·문서, 방송 전도·전도요원 훈련 담당 등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전도위원회」산하의 각 지회 중 먼저 남전도회의 현황을 살펴 본다.

회원수 180여명이 있는 남전도회는 가장 큰 사업이 지교회 보조인데 현재 금현교회와 장락교회 두 군대를 재정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새로 지교회를 한 군데 더 물색중에 있는데 상기 두 교회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전도를 나가고 싶어도 마음뿐이어서 새로이 지원할 교회는 가급적이면 서울 인근 가까운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꼭 재정적으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자주 직접 그 교회로 전도 지원을 나가 실질적인 남전도회 전도활동을 벌여 전도의욕을 고취시켜 보자는 것이다. 또 남전도회는 매월 유급 전도인이 1만명 이상의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고 역전(驛前)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개인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6월 중에는 구제부를 주축으로 지방에 무료전도를 나가 전도와 동시 축호전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월례회 때면 각 회원들이 전도지를 양껏 가지고 나가 뿌린다는 여전도회는 남전도회와 마찬가지로 성광교회, 성현교회, 천지교회 등 세곳의 개척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중부 시립병원 전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회 절기 때면 병원이나 형무소 등지로 위문과 동시 전도하는 일이 있는 외에 별 특별한 전도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가장 활발한 전도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역시 청년부가 아닌가 한다. 12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청년부는 노방전도와 일제전도 그리고 특별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방전도는 주로 장충공원을 중심으로 수시로 나가며 일제전도는 개척교회 부근 일대에 회원들 전체가 일제히 나가 집중적인 전도를 하고 때로는 병원을 선정하여 나가기도 한다. 특별전도는 부활절이라든지 부모님 주일,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 때에 특수한 지역, 주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나가는 전도이다.

금년 들어 청년부에 새로운 기풍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 새신자를 전도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인도해 와서 몇 주일 나오다가 이내 소리없이 사라져 버린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안으로 눈을 돌려 동북만 하고 나오지 아니하는 소위 『잃어버린 양』 찾기를 운동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길가나 돌밭 같은 심벌이 되어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도 못한채 해매이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려운 문제에 청년부는 부심하고 있다. 또 청년부에는 전도에 열심있는 회원들 10여명이 『여호수아전도대』라는 이름 아래 매주 수요일 철야기도를 하고 있고 일년에 세번 정도 산상기도회를 가져 피곤한 영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가장 학구적이라 할 수 있는 대학부를 살펴 보면 역시 그들은 실제의 전도활동보다는 이론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학부는 7주에 걸쳐서 분반공부를 통해 전도의 이론을 학습하고 5월을 전도의 달로 정해 전도 실습을 하였다.

그 혼란 노방전도 같은 대중전도는 아직 나서지 못하고 주로 병원을 택해 전도하는데 이때 부속병원, 한일병원, 중부 시립병원 등 매월 3개 병원을 순회로 나가려 계획하고 있다. 방법은 주로 찬양전도와 개인

전도를 병행하리라 한다. 이런 공식적인 전도활동 외에도 대학부는 회원들끼리 찬양전도팀을 조직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병상을 찾아 나서고 있다. 또 대학생들인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학원전도,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각 대학마다 이크투스(*ixtus*)팀을 조직하여 일면 학원전도, 일면 회원들의 코이노니아에 힘쓰고 있다.

대학부에서 문제라면 아직도 실제적인 전도 훈련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대학생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가 큰 문제로 계속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요즘의 대학생들같이 일률적으로 전단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은 우리 교회 대학부에 걸린 크고도 막중한 사명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또한 대학부 회원들은 농촌 전도, 군대 전도, 해외 선교에 관심들이 대단한데 4년 동안에 전도의 엘리트로 훈련되어 배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부는 수년 전부터 「70인 전도대」가 조직되어 노방전도에 힘쓰고 있는데 1~3월의 겨울 동안에는 개인전도 방법을 교육하고 4월부터는 실제로 전도에 나서도록 하는데 전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드레 전도운동을 추진 실시하고 있다.

고등부의 특이한 전도조직으로는 학원전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목요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는 점인데, 현재 약 70여개의 목요회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대의원회라는 것이 있어 고등부 35개 반에 반장을 중심으로 자기 반 학생을 중심으로 심방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등부도 고등부와 비슷하게 「70인 전도대」를 훈련하여 수시로 노방전도를 나가며 월 1회 정도 병원전도를 하고 있다.

이밖에 집단전도라고 해서 동대문 평화시장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역을 택해 일제히 전도 나가기도 한다. 학원전도는 아직 손 못대고 있으나 학생들을 전도요원화시켜 곧 실시해 볼 계획도 세우고 있다.

초등부는 월 2회 정도 주일 오후 3시에 노방전도를 실시하는데 30분 동안 기도회를 가지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태웠던 방편으로 전도훈련을 시켜 35명 정도가 장충공원으로 나간다. 이들 어린이들은 나갈 때마다 15~20명씩을 꼭 짊어질시킨다는데 사실은 어린이 전도가 제일 성과있고 또 가장 잘 받아들인다고 부지도 김정훈 선생은 얘기한다. 이들은 어린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부근이나 공원에서 놀다 어린이들을 전도해 데리고 올 계획도 가지고 있단다. 마지막으로 유년부의 꼬마들도 전도에 뒤질세라 월 2회 30여명이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걸릴까지는 못시키나 반응은 대단히 좋다고 지도교사는 힘주어 말한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전도기구의 현황을 활동상황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제 이들 여러 지회간의 상호관계를 본다면 한마디로 서로간에 아무런 연관도 유기적 협조도 현재로선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냥 독자적인 전도활동을 자기 전도회의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9페이지에 계속)

II. 우리교회 전도인 훈련실태

전도는 먼저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효과적인 전도를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개인별 전도 전략과 집단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전도인의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도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교회는 전도인의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기구가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훈련기관은 없으나 개인전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작년에 「안드레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안드레회」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안드레가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나도 또한 안드레가 되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요 1:40-42) 취지에서 안드레가 되어 자기가 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을 「안드레 카아드」에 기록한 다음 그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여 결신자가 생기면 즉시 교회 전도부에 보고를 하는, 안드레들의 모임이다. 교회에서는 이들을 각 구역별로 조직해 주었는데 현재 참가하고 있는 구역은 34개 구역이다. 이 「안드레회」는 한달에 한번씩 회집하여 「안드레기도회」를 갖는데 이 때 각 안드레들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전도한 내용을 간증 형식으로 보고를 한다. 이러한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그들은 효과적인 전도방법들을 모색하고 자체교육을 하는 것이다. 또 「안드레회」는 지도자의 특강을 통해 체계있는 전도훈련을 받기도 한다.

이들 각 안드레들은 그 이름 안드레에 부끄럽지 않게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장(市場)같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한번 나가면 각 사람이 7~8명씩은 꼭 전도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안드레회」를 확대시켜 「전 교인 안드레회」운동을 펴리라고 한다. 일찌기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듯이 우리 교회의 안드레들은 먼저 자기의 일가·친척·친구등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입에 오르내리지만 민족 복음화의 첫 단계는 먼저 믿는 「나」를 중심으로 그의 주변부터 마치 호수의 파문처럼 원심적(遠心的)으로 파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란 말씀을 축소·해석하면 바로 「나」의 주변부터 복음화해 가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우리 배달 민족을 씨족의 혈연으로 그래서 오천만 민족이 모두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지도록 유대시켜 놓은 것은 어쩌면 우리민족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각 안드레가 속한 직장에서 전도하고 또 동업인간에 전도하게 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교회는 여기에서 산업전도에 대한 힌트를 얻고 지난 4월 11일 가정 「산업전도 교육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산업전도 교육부」는 어디까지나 주일학교의 한 부서로서 우

리 교회 실업인들의 전도 훈련과 직업 청소년들의 종교교육 및 신앙생활 지도를 담당하여 각 직장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특수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최소한 우리 교회 실업인들의 직장을 하향적으로 복음화함은 물론이요, 또 여건상 주일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 청소년들을 흡수하여 직장 전도인으로 교육 훈련함으로써 그들이 소속한 직장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우리 교회에 아직 구체적인 전도인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 문제점도 있을 터이 없어 참고적으로 전도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씨를 뿌리는 일과 열매 맺게 하는 일을 구별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말씀을 선포한 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지를 나눠주는 등 전도를 위한 일차적인 노력만 내가 하고 그 뒷처리(善後)는 상관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물론 궁극적으로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겠지만 그렇다고 나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조리 성령께 맡겨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발뺌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인 줄안다. 전도에 관한 한 인간의 노력도 백 퍼센트 바쳐야 한다고 본다.



◇ 씨를 뿌리기만 하고 잘 가꾸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튼 많은 교인들이 애써 전도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육성으로까지 연결이 못되고 있으니 문제는 크다. 작년부터 교회에서 새신자부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신자부는 전도를 받아 나오는 이들 초신자들을 체계있게 육성시켜서 유능한 기성 교인으로 만드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 새신자부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용원원에 비해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행정적인 면에서는 각 구역 권찰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및 협조가 부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신자부로서 크게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인들의 인식 부족이라고 지도 교역자들이 정기성 목사는 말한다. 갓난애는 어른이 부족을 해줘야 하는데 인도만 해다 놓고 전혀 두관심해 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한 육성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상에서 우리 교회의 전도인의 혼란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규모로는 2천 세대를 넘고 5천명 이상의 교인 수를 자랑하는 매미드 교회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전도인의 혼란 실태는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형편에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체제에서 어떻게 대교회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개인전도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안드레회」는 기성 전도인의 훈련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안드레로 통칭되는 전도인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도 참여 구역수를 본다면 지극히 일부 구역에 불과하고 있다. 작년에 한창 총동원 전도운동이 가열될 때에는 8월 중에 「제1기 전도요원」을 모집하여 3개월 동안 훈련시킨다고 준비를 하는 듯 하더니 결국 공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다행히 가정 「산일전도 교육부」가 새로 발족을 보았으니 그것이 주일학교교인 한 직장 전도인의 훈련에는 상당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 전도요원의 훈련이므로 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도요원 훈련 백서(白書)를 발표하여 전 교인의 능동적 참여를 구해야 할 것이다.

〈7페이지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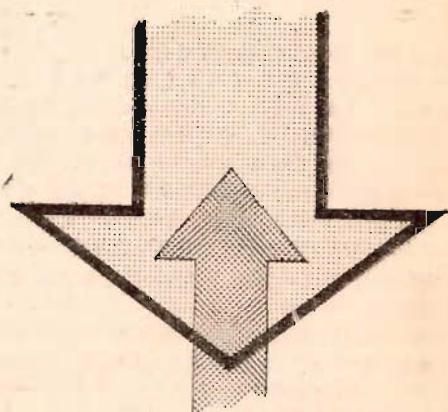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 교회가 각부에서 열심히 전도활동을 벌이고는 있으나 그것이 서로간에 아무런 연관성도 유대도 없기 때문에 도무지 계통도 체계도 서있지 않고 중구난방식의 활동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을 심본 감안해서 늦게나마 교회가 「전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동안 전도에 관해 누적된 병폐와 잘못된 점들을 과감히 시정하여 우리교회 전도활동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지도자 양성부 제 10기생 모집 □

- 자격/총현교회 교인
- 마감/1976년 6월 20일
- 개강/1976년 6월 21일(월)
- 수업/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 ※ 수료 후 주일학교 교사자격증을 줌.

□ 캠페인/총동원 전도운동 □



총동원 !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운동 !

군목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군에 들어와 보니 전군(全軍)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려면 우리 군목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힘에 겨운 일입니다.....”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총회신학교 65회 졸업생으로서 작년에 군목으로 입대하여 지금 전방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군목입니다. 군전도에 대하여 말로만 들어오던 제가 막상 군대에 입대하여 보니까, 군중활동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군목생활이었지만 너무나 큰대로 느낀 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으로써 여러분의 군전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기도로 또 물질로 도움을 호소코자 합니다.

4개월간의 훈련과정과 입관 후 몇달 동안의 군목생활에 있어 크게 느낀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입니다. 첫째 우리 교단의 군목들이 군에 많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교단의 군목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래도 목사의 권위를 지켜 믿음대로 살아 보려고 애쓰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 애를 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교단의 군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타교단 군목들은 모두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마구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논산훈련소와 보병학교와 또 사단을 거치는 가운데 크게 자극을 받은 것은 군승들과 신부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승들과 신부들의 숫자나 계급으로 볼 때에 크게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모두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그들의 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군승들의 활동은 극성스러운 정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돕는지 몰라도 곳곳에 커다란 절을 지어놓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극성을 부리니 실로 그들이야말로 크게 자극을 주는 존재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병학교에 가보면 군부대 안에 있는 절로서는 동양 최대의 큰 절을 지어놓고 그야말로 복에 힘을 주어 고개를 땀땀이 세워 그대들의 도를 전한답시고 돌아다니는 판입니다.

젊은 세대의 소절이지만 그대로 군전도에 대한 저나를 대로의 앞날을 내다볼 때 정말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군승들이나 신부들의 계급이 낮지만 몇년 후에는 군승과 신부 가운데서 대령이 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책적으로 군승이나 신부들도 돌아가면서 군중감을 역임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앞

으로 몇년 후에 군승이 군중감이 된다고 가정하여 볼 때 그대들은 분명히 군목의 수와 군승의 수가 달라야 할 이유가 어찌 없느냐고 따지며 군목과 군승의 수를 같게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어느 것이 참진리이냐 하는데 있어서 군목의 수가 적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테지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겠습니까?

작년의 경우 76명의 군목이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목사는 불과 3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6명의 군목이 한해 사이에 줄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군승들이나 신부들이 군에 들어오면 거의가 장기복무를 합니다. 그대들은 배후에서 생활보장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목들은 대개가 적은 봉급에만 의존하여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목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제대하여 민간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는 뜻을 가지고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몇 군목들은 민간인 교회의 보조를 받아 다소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있으나 그것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교단의 크기에 비례해 볼 때 우리 합동측 교단이나 통합 또는 고신측 교단의 군목은 그 수효가 타교단에 비해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 보려는 군목들은 대개 제대를 하는 반면 타 교단의 군목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군목들이 일하던 자리에 점차 군승들이 들어와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니 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래 전부터 군전도를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도와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복을 입고 군에 들어와 보니 전군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려면 우리 군목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힘에 겨운고 후방의 여러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마다 전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하여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베풀어 정말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악전고투하는 우리 보수교단의 군목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날로 성령이 충만해가는 교회로 더욱 부흥되 이가는 귀교회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976년 6월 일

육군 제○○부대 군목 권태락 올림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
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
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인.....
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중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윌러 트로비쉬 저
 양 은 순 번역



생명의 말씀사 발행
 4.6판 244면 값 520원

『이 책은 결혼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 책에 나오는 것 가운데 꾸며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지금까지 살아 있다.』

이 말은 저자가 서문에서 한 말이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다. 그리하여 「월간 중현」에서도 한 가정의 기초가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성도의 결혼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이 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성경적인 면에서 아주 분명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 결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결혼할 것인지, 부부생활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결혼에 따르는 많은 문제와 갈등·회의 등에 대하여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문에 있는 저자의 말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체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흥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는 제목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서 결혼의 진리에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찾게 될 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새삼스러이 깨닫고 감격하게 될 것이다.

* 정삼우 목사(구역담당·성가부지도)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편람은 도서실 이용을 소개하는 안내서입니다. 본 도서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위하여 가장 친근하게 접촉할 진리의 보고(寶庫)이며, 여러분에게 적절한 자료를 소개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입니다. 특히 본 도서실은 명상과 기도로 피곤한 머리를 쉴 수 있고 고민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도서 열람 및 대출 <

일반도서의 관대 및 관외 대출은 본교회 등록교인 전원에게 실시하되 등록확인 후 「도서대출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도서실 개관 시간 <

- 주 일 : 오전 8시반~오후 7시
- 월~토 : 오후 1시~오후 9시
- 매주금 : 정기 휴관

> 여러분의 도움이 요청됩니다 <

여러분께서 신앙과 문화의 유산을 후손 또는 후배들에게 계승 유적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증된 도서에 대해서는 귀중히 그리고 영구히 기증하신 분의 이름과 함께 보존될 것이며 그 활용에 있어서도 보다 충실한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 도서를 기증하시려면 현금을 위탁하시거나 직접 기증하시면 됩니다.

도서실 이용자의 주의사항

1. 도서실 이용자는 가방·외투 및 소지품을 정문 입구 가방보관소에 맡기고 들어가야 합니다.
2. 도서대출 후 반납기일이 경과할 때에는 책당 1일 연체료 20원을 부과합니다.
3. 도서열람 대출증의 분실로 말미암은 모든 사고의 책임은 분실자가 집니다.
4. 도서대출의 분실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반납이 불가능할 시는 재정리비로 시가상당을 가산합니다.
5. 만일 이러한 규약에 순응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도서열람대출증을 발부받지 못하며 그에 따르는 권리도 박탈당합니다.
6. 제납도서를 청산하지 않는 교인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중단됩니다.

* 중현교회 도서실은 1973년 9월 18일 교회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되었습니다.

□ 중현교회 도서실 □

교회란 무엇인가?

이 정 웅

<고등부교사·총회신학연구원 2년>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에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은 「엑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이며, 「엑크」란 말은 「에서부터」(out of)이고 「칼레오」란 「부른다」란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흔히

교회라 하면 건물을 연상하는데, 교회의 참뜻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단체이다.

1. 신약의 특수명칭

1)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아시다. 그의 생명은 교회의 생명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칭호의 최대의 교훈은 그의 지체들인 신자들의 영적 연합이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골 2:5).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영적으로 자라날 것이니 「은혜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자라나리라(골 2:19). 이 말씀은 또한 신도들이 서로 긴밀히 의존함과(고전 12:15-20), 서로 귀중히 여기며(21),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볼 것(25)이며, 생사고락을 같이할 것을 의미한다.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도덕적인 의무로서 무엇보다 몸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고전 6:11).

2) 그리스도의 신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했고(호 1:~3:),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도와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했다(계 19:7).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로라」라고 한 말씀은 신부된 교회는 정결할 것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지상에 있을 동안 그리스도를 사모할 것과 후일에 완전히 그와 일체가 될 것을 의미한다. 에베소 5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쳤다(엡 5:24-25). 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성결할 것을 강조하였다(26, 27).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거룩하고 흠이 없이 순결하게 살 것이다.

3) 하늘의 예루살렘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그가 그의 백성들과 접촉하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처소로 제시되었다. 신약은 교회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였다(계 21:2, 10).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와 교통하기 위한 처소이고 지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다. 「여기 메시야의

왕국이 있으니 그것은 제림 전에는 교회요 제림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이다」(Meyer).

2. 교회의 사역

1) 전도이다

교회의 사역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특히 병자를 위문하며 전도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다. 이 일을 성실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면 많은 효과를 거둔다.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다가 병상에 누으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하며 목사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심정이 생기며 또 간절해진다. 평상시에는 종교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도 몸에 병이 들면 영혼의 귀중성을 느끼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 병자의 심방은 병자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감화시켜서 그들이 신자라면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할 수 있고 그들이 불신자라면 목사와 친근하여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2) 자신의 사역이다

구약시대에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하여금 구제를 시행하게 하는 방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출 23:11; 레 19:9, 10).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예루살렘과 각처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장로와 집사라는 직원이 있어서 구제비와 기타 모든 재정을 관리하였다고 유대인의 역사는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마 26:11; 막 14:7)라고 말씀하실 때에 교회의 구제의 의무를 암시하셨다. 초대 교회의 유두상봉은 신자 중에 생활상 궁핍을 돕게 하였다(행 4:34).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일상구제에서 동한시되었을 때에 사도들은 자격있는 일꾼 사람을 택하여 이 필요한 사무를 담당케 하였다(행 6:1-6). 그 후 신약은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금을 수납할 필요를 반복 주장하였다(행 20:35; 11:29; 고전 16:1-2; 갈 2:10; 6:10; 엡 4:28; 딤후 5:10, 16; 약 1:27; 2:15, 16 요일 3:17).

교회의 자선은 영적인 가치가 있다. 세속단체나 인물들 중에도 구제가 없잖아 있으나 불신자들의 구제는 자기들의 이름이나 단체의 이름을 위주로 하지만, 교회의 구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 된다. 교회는 자체 안에서 극히 가난한 자들을 찾아 구제하고 나아가 교회 밖에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5-36). 그의 예도 교회의 사역은 많이 있으나 저면상 생략한다.

(*)

나 주를 멀리 떠났다

I've Wandered Far Away

(새 279; 개 245; 합 249)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1892년의 어느 날 커크패트릭(William J. Kirkpatrick) 교수는 펜실베이니아 로린즈빌(Rawlinsville) 캠프 집회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집회의 독창자로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청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커크패트릭 교수는 그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랐지만 권고한다고 해서 믿을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었다. 저 청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커크패트릭 교수의 그에 대한 염려는 날로 더해가서 하루는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청년이 하루 속히 죄를 깨닫고 중생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영혼의 찬송을 부르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다. 기도하는 중에 시가 한 줄 떠올랐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일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의 두 팔을

넓게 벌려 주소서.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이상하게도 시가 출몰 나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독창자에게 주시는 노래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는 이 시에 곡을 붙여 늘 하던 대로 그날 저녁 독창자에게 주어 부르게 하였다.

저녁 집회 시간——

독창자는 자기의 있는 정신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부를 때 이제 주님 앞에 올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임을 알고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 이 한 사람에 국한할까. 본래는 한 영혼을 위해 쓰게 된 이 찬송이 수도없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훨씬 풍부하게 허락하신다.

1921년의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도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지 않자 그의 부인이 불려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서재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작사하다 마지막 절을 마치지도 못한채 하나님께로 갔던 것이다. 그의 나이가 83세, 1838년 에머럴드섬에서 태어나 1921년 필라델피아에서 세상을 끝마칠 때까지 그의 생은 찬송가로 시작해서 찬송가로 끝을 맺은 것이다. 그가 지은 이 찬송은 또한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부르기 위해 지어졌는지도 모른다."

1700년 전

평가회

정 은 표

「평가회」라고 하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귀에 익은 말은 아니었다. 그것은 학교 선생이나 공공기관에서나 사용하는 말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막론하고 반드시 「평가회」라는 순서를 마련하고 실시된 행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으로서 앞으로 더욱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가지 미흡한 것은 아직도 「평가회」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름만의 「평가회」일 뿐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즐기게 행해 오던 「반성회」에 불과하고 싶다면 「집담회」나 「보고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예시다. 물론 어떤 일이 지난 후에 반성을 한다는 것도 다음에는 좀더 잘해 보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지만 반성이란 흔히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분히 개개인의 감정에 편중되기 쉬운 것 같다.

이같이 「평가회」가 「집담회」로 변화되는 때는 몇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먼저 「평가」에 대한 가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 같다. 대부분 평가를 비판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평가가 비판도 아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평가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계획된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따져보는 것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설정하였던 목표에 얼마만큼 접근하였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주로 그 목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아주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었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회에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음은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부족인 것 같다. 확실하고도 능률적인 일처리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경영학이란 학문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의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일처리 방법의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일이 끝난 후에 그 일이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유용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은 물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문제는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가는 우리교회의 여러가지 사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일선 업무 담당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관리의 기초적인 교육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선교와 인간화

신성종 목사

<대학부처도·월간「충원」주간>

- ◇… 우리는 지금까지의 선교개념을 복음전파만으로 국한시킴으로써 빛…◇
- ◇…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의무를 등한시하여 온 우리의 잘못도 인정해…◇
- ◇…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사회에 대한 봉사를 복음전파보다…◇
- ◇…우선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총회가 그동안 벌여…◇
- ◇…온 일반교회운동은 우리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 ◇…동시에 교회의 4대 기능 중 하나인 봉사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
- ◇…다.”

(본문 중에서)…◇



지난 몇해 동안에 선교 개념에 대한 논쟁이 한국 교회의 내외에서 대두되어 온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복음화냐」 아니면 「인간화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걸어 놓고 몇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란 사회의 변화와 맺 수 없는 변증적 긴장(a dialectical tension)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인간화(humanization)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1968년 유살라 대회에서 에큐메니칼의 선교전략으로서 기독교화나 교회의 증가가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간화」라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면서 그 영향이 한국교회까지 들어와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에 대해 홀러신학교 교수인 맥가부란은 교회성장회보(Vol. IV, No.5, 1968년 5월호)에서 유살라는 20억의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유살라의 인간화 정책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주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교후 5:20”고 한 말씀과 배치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 즉 중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영국의 복음적 신학자인 스톱트(J.R. Stott)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 제안했다. 그것은 「선교=복음전파+봉사」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에 있어 복음전파가 우선되어야 하나 사회에 대한 교회의 봉사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그가 인간화란 용어를 미하고 봉사(service)라는 말을 쓴 것이다.

그러면 선교와 전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적어도 두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전도는 복음전파만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선교는 복음전파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봉사를 내포한다. 둘째 전도란 어떤 경제선을 넘는다는 의미가 없으나 선교란 새 경제선을 넘는다는 뜻이 포함됨으로 이 둘을 구별하여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면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적어도 두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전도는 복음전파만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선교는 복음전파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봉사를 내포한다. 둘째 전도란 어떤 경제선을 넘는다는 의미가 없으나 선교란 새 경제선을 넘는다는 뜻이 포함됨으로 이 둘을 구별하여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교개념을 보면 과거에는 제국주의적 국가확장과 관련됨으로써 서구선교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 급작경하여 혼합주의적(syncretistic) 관용으로 흐름으로써 윤성병 교수의 한국적 신학이 대두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급진 신학자들의 비판적 연구의 결과로 그 권위를 상실한 데에 기인한다. 사실 볼트만의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와 실존적 해석은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속죄 및 천국에 대한 개념을 흐리게 하였으며 푸레저의 상황윤리(situation ethics)관은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범임을 부인함으로써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경계한 혼합주의의 대두를 초래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소위 인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간화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본회피의 윤리관을 선교적 관점에서 나열한 데 불과하다. 즉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삶/man for others」을 그가 처한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구국기도회」나 「렐주주의 회복운동」이니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화의 구체적 대응이었다. 그래서 가톨릭의 좌파인 검지하의 사회주의 활동 같은 것이 일어났으며 소위 명동의 3·14집 같은 불행할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서구에서 수입한 급진주의 신학이나 선교전략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비극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화는 신본주의이며 칼 막스에게 개독교의 옷을 입힌 때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인간화는 예멘 통일에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한 뱀의 유혹과 같은 위장전술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W.C.C.를 경계해야 할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선교개념을 복음전파만으로 국한시킴으로써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의무를 등한시하여 온 우리의 잘못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사회에 대한 봉사를 복음전파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임과 동시에 또한 불신사회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변증적 긴장관계와 또 교회의 한 단위일 우리들을 할 사람 한 사람이 이중 국적자(즉 천국과 지상의)라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총회가 그동안 벌여 온 일반교회운동은 우리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회의 4대 기능 가운데 하대인 봉사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맛을 잃은 소금을 절국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

구역소식

■ 축하합니다. (5월중 결혼)

- 차선득/차병국 목사 아들, 이승순/이재기 집사
구명신 전도사 딸—10일, 충현교회
- 이진실/민은혜 집사 딸—11일, 충현교회
- 한근옥/이민자 집사 딸—14일, 조선포넬
- 전영희/하광숙 집사 딸—15일, 로알호텔
- 이명제/이영주 권사 아들—22일, 충현교회
- 김준숙/김성모씨 딸—22일, 충현교회
- 우경희/전영복 집사 딸—17일, 영락교회
- 이경자/홍복식씨 딸—22일, 한국일보사
- 최정일/이정자 집사 아들—29일, 코리아나호텔

■ 위로드립니다. (5월중 별세)

- 진원식/진수영 권찰 부친—5일
- 박제환/박영실 여사 부친—13일
- 김진원/회원구역—24일
- 홍순이/김재창 목사 백모—28일

■ 5월중 해외이주 가족

- 김영자/유년부 부감—20일, 미국
- 현서길/장중 ①구역—28일, 미국
- 유경복/노년부—30일, 미국

〈알림〉

· 무더운 여름인 7월과 8월은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산업전도교육부 안내

오는 7월 4일 개교를 예정으로 신설된 산업전도교육부에서는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들을 모아 신앙인으로 육성하여 자기 직장에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매주 3부 예배시간(오후 12시 10분부터)에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직업을 가진 청소년이기에 문에 주일학교의 그 어느 부(部)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직업 청소년이 있다면 권장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절차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 6월

충현교회 주일학교 산업전도교육부

■ 구역장 노트⑤

구역집회 인도 요령

백 성 통 목사
〈구역원찰회장〉

보통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구역예배 때에는 성경공부와 성도들 간에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주로 구역장이 주동이 되어 인도하게 된다. 즉 예배·성경공부·친교로 구역집회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셋을 각각 잘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일정한 시간에 모였다가 헤어져야 한다.

전체시간을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 정도로 하고 그 이상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간 관념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질서가 흐려지게 되고 모이고자 하는 성의도 없어진다. 또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모임 사람도 못 모이게 되는 수가 있다.

2. 모든 진행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구역장과 강사는 시작시간 전에 미리 집회장소에 나와 있어야 하며 시간이 될 때까지 일찍 나온 구역원들과 서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잘 조성되도록 한다(엡 4:29; 5:4).

1) 성경공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흔히 성경공부시간에 예배의 형식을 취하나 그것은 예배와 공부를 합해서 보는 습관에서 온 것이다. 그럴 필요 없이 강사로 하여금 기도하고 이어 공부를 시키도록 할 것이다.

2) 예배순서: 복도와 성서봉독과 간구의 순서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성서봉독은 3절 이내로 함이 좋고 간구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주관해 주실 것과, 회중이 은혜 받도록 축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족하다. 찬송은 설교자와 의논하여 백합이 좋다. 예배를 시작하여 첫번 찬송이 끝날 때까지는 대략 6~7분이면 된다. 기도를 사전에 예고 없이 즉석에서 호명하게 되면 기도도 익숙지 못한 사람은 매우 당황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도는 미리 부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하고 5분을 넘지 않게 한다. 설교는 15분 정도가 알맞고 그 밖에 찬송과 마지막 기도 등 순서로 마치게 되는데 전체 시간을 30분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3) 친교시간: 구역장은 특별히 이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통성기도나 저명기도로서 그 분위기에 합당하도록 시작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시킨 사람으로 이야기하게 하는데 너무 학문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실제로 유익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좋다.

3. 장소는 누구나 모일 수 있고, 집회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고, 장소 제공자에게 짐이 되지 않는 곳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장소에 계속 모여도 좋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말자

—6월은 전도의 달,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소식 널리 외치자—

부활 후 40여일이 지나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은 물론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그대로 증거할 것을 명하셨다.

우리는 이같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자성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자 해마다 부활절이 지난 6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전도문단 현상모집을 비롯하여 선교총원대회, 안드레 전도 간담회 등의 행사를 벌이며 세계 주일까지 오후 특별집회가 끝나면 온 성도가 노병전도를 나가기로 한다.

전도의 달 행사를 위하여 마련한 이같은 갖가지 행사에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총원의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극참여하여 줄 것을 전도위원회에서는 부탁하고 있는데 이 총동원 전도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훈련, 여름 성경학교, 하가 수양회, 농어촌 전도동 일년중 가장 중요한 행사들이 계속되어질 것인데 총동원 전도운동이 막과 희생이 요구되는 이같은 온갖 여름행사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의 역할이 되어지기를 또한 바란다 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500달러 선교헌금

—충현 성도들 해외선교 위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인도네시아 해외선교를 위해 경성껏 마련한 500달러를 헌금하였다고 한다. 현재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임현택 장로가 보내온 편지에 의하면, 본 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인도네시아 한국선교관(5월중 개관 예정이었음) 건립비를 제때 송금할 수 없어 막대한 지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충현」의 몇몇 성도들이 힘을 모아 돕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노력과 수고가 결실하여 우선적으로 500달러(임현택 장로 300달러, 김성관 집사 100달러, 이정철씨 100달러)를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에게 송금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힘자라는 데까지 도울 생각이라고 하는데 해외의 모든 「충현」 성도는 물론 본국의 「충현」성도들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으며 시카고에 오시는 「충현」성도에게는 편지를 제공하겠다는 말도 부연하고 있다.

성경학원 첫 졸업식

—3년 수업자 16명—

1973년 성경학원이 개원된 이래 성경학원 3년제 보통반 첫 졸업식이 오는 6월 16일 저녁에배 후에 있다고 한다. 모두 16명(남: 2명, 여: 14명)이 이번 졸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웃 친지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현재 충현성경학원에는 64명의 보통반 학생이 수업중이며 1976년도 제2학기 학생모집은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암송대회

—9명이 전장 암송—

올들어 첫번째 우리교회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열렸다. 에베소서 6장 전장을 암송하게 되어 있는 이번 암송대회에는 모두 129명의 참가신청자가 있었는데 7개처로 나누어 실시된 이날 암송대회에서 모두 9명이 전장을 암송하여 특상으로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다음 암송대회는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암송내용은 빌립보서 전장이라고 한다.

효자·효부 표창받아

—오회용 장로, 최승욱 집사—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환중인 부모님을 정성껏 간호하고 봉양함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데 본이 된 효자·효부에 대한 표창식이 지난 5월 30일 주일 저녁에배 후에 있었다.

도봉구역의 오회용 장로(감리교에서 장로 취임)와 최수남 집사가 그 주인공들인데, 오래 전에도 출석하던 우이감리교회와 동리에서 표창을 받은바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효행을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같이 표창하는 일을 계속하리라고 한다.

일만교회운동 특별집회

—우리교단의 전국적인 부흥운동—

성령강림절 주일을 기하여 일만교회운동을 위한 특별집회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저녁 우리교회에서 있었다. 일만교회운동 중앙위원회(위원장 장성철 목사)가 주최한 이번 특별집회에는 서울 신현교회의 정석홍 목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일만교회운동은 우리 교단이 벌이고 있는 전국적인 부흥운동으로서 앞으로의 성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한편 당회장 김창인 목사도 6월 14일부터 청주와 수원지방에서 각각 일만교회 운동을 위한 특별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 두 곳 선교지 확장

—홍콩과 홍해지역에—

홍종만목사를 선교사로 파송 예정—

홍해지역과 홍콩에 있는 교인 교인들의 수차에 걸친 간곡한 요청에 따라, 당회는 지난 6월 1일 이 두 지역에 새로이 선교활동을 펴기로 하고 우선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홍콩지역에는 홍종만 목사가 파송될 예정으로 현재 수속중인데 현재에는 60여명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있으며 아세아의 관문인 홍콩지역의 선교활동은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비롯하여 「충현」의 선교지는 4개처로서 크게 확장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잘 감당하려면 온 성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홍종만 목사〉

정석태·김영삼·최성립 당선

—지난 5월 16일 투표에서 새로이 장로로—

처음 계획은 올해 5명의 장로를 더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예상했던 바대로 좀처럼 표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2차투표까지 실시해서야 겨우 세 분의 당선자를 내었다. 우리교회 교인수나 교회 여러가지 업무량에 비하여 볼 때 매우 부족한 장로선출에 있어서, 현행 장로선거법으로는 때때 반복되는 이번과 같은 표분산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이번에 선출된 세 분은 가을 노회에서 노회가 시위·승인하고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장립식을 갖게 될 것이다.

군중요원교육 의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통일촌교회에서는 전방부대의 군중요원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의뢰해 왔다. 지난 1974년 6월에 실시한 군중요원 훈련의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또 다시 의뢰한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전도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홍종만 목사와 이연호·이승근 전도사를 강사로 파송하며 교회에서는 소요예산 20만원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통일촌교회에서 열릴 이번 「제2회 군중요원 교육」에는 최전방부대 군중요원 60명이 참가하게 된다고 하는데 군 사병 신앙생활 인도의 기간원이 될 이들을 위한 교육에 온 성도는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한다.

주교 교사강습회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회장 김종석 장로)가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들을 위해 실시하는 교사 강습회가 오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특별히 이번 강습회에는 예년과 달리 새롭고 충실한 내용을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중원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모두가 참석하여 줄 것을 교육위원회에서는 부탁하고 있다.

제일성가대 철야기도회

지난 5월 28일 제일성가대는 영아부실에서 이승근 전도사의 인도로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성가대원들의 신앙 성장과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마련한 이같은 기도회가 앞으로는 매월 세계 금요일마다 계속하여 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매주 오전 중에 지도 교역자인 정상우 목사의 지도도 성경공부도 실시하고 있다.

토막소식

- * 교역자 하기 휴양이 7·8월 2개월 동안 교역자별로 각각 실시하게 된다.
- * 오는 7·8월은 구역예배를 한다.
- * 지난 24—25일에 실시된 첫·신혼부부 교육에는 일평균 21명이 참석했다.
- * 남전도회는 서울 근교에 새로 도울 지교회들 물색 중이다.
- * 성경학원 도서관은 6월 6일 우리교회 도서관 이용안내서를 발행하여 배포했다.
- * 지도자양성부는 제10기 학생을 모집 중이다. 개강은 6월 21일이며 매 월요일 저녁에 수업을 하게 된다.
- * 신설된 「산업전도 교육부」는 오는 7월 4일 개교 예정으로 학생을 모집 중이다. 자격은 직업을 가진 남녀 청소년.
- * 교육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대학부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 * 영아부는 6월 27일 2학기 내용 중에서 성경이야기대회를 연다.
- * 유치부는 6월 27일 성경이야기대회를 연다.
- * 유년부는 6월 25—26일 임마누엘 수도원에서 「교사철야기도회」로 모인다.
- * 초등부는 6월 27일 자체 사무집회를 실시한다.
- * 중·고·대 합동 신앙운동대회가 6월 20일 반공정신을 주제로 열린다.
- * 고등부는 6월 27일 고등부실에서 글짓기대회를 연다.
- * 대학부는 6월 20일 12시부터 대학부실에서 외국인 신앙간증을 듣는다.
- * 대학부는 중원대학 잔치를 오는 7월 3일 연다.
- * 청년부는 6월 27일 「청년부의 사명과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대회를 연다.
- * 노년부는 6월 20일 예배소서를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환영!

제2회 능이촌교회 교역자 초청 훈련생

축! 졸업

제1회 성경학원 보통반 졸업

□교회의 모든 물자를 아껴쓰시다□

기 자 석 어떤 건물 앞을 지나던 청년이 문득 전봇대처럼 우뚝 서는 것이었다. 예배당에서 샘물처럼 맑게 흘러나는 찬송이 피로 얼룩진 그의 발목을 붙잡은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은 가고 안제시는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즐겨 부르시던 기도가 담긴 찬송이었다. 그는 그 길로 교회로 들어가 새 사람이 되어 훌륭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엔 그러한 찬송을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슬픈 일이다.

우리는 예배시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한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설교에까지 연장시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심령에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원에 그칠 것이 많다. 왜 그럴까? 혹 찬양 속에 순수하지 못한 색깔이 배색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는지. 도시교회의 비봉사적인 성가대 운영으로 말미암아 한낱 기능 보유자의 집단으로 전락되고만 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찬송은 구속함 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그 크신 사랑에 정복당하여 영혼 깊숙이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신령한 노래인 줄로 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뉘엿뉘엿한 것이 성가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기술 외에 정신과 힘을 다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찬양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무릇 창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길목교의 찬송이 아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은 무슨 악세사리적 순서가 아니다. 때문에 찬양이 있을 때는 설교자는 설교원고를 만져작거린다거나 회중을 일별하는 등의 개인행동을 지양, 반작합과의 똑바른 자세로 성가대에 주목할 것이요, 회중들 또한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주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현금시간에 솔로를 한다. 이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는 위선의 찬송을 부르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실로 고맙기 한량없는 순서이다.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곧 기능 보유자가 찬송가를 들고 그저 순서이니라 내 기본실력 가지고 한다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다. 아무 대원이라도 일주일의 생활에서 크게 은혜 받은 찬송을 두 손을 정성스레 모으고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감사를 담아 부른다면 그거야말로 온 회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 열납하실 만한 현금의 찬송이 아닐까? <태용>

◎ 6월 충동원 전도의 달 행사 ◎

1. 당신은 전도를 해 보았습니까?

첫째(6일), 둘째(13일), 셋째(20일) 주일은 노방전도를 합니다.

2. 전도지 문안 현상모집 ※ 시상하고 교회 전도지로 채택함.

가. 마감: 6월 30일까지

나. 내용: ① 성인을 위한 것 ②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것

③ 중·고등학생을 위한 것 ④ 어린이를 위한 것

⑤ 특수용으로 병원, 유치장용

다. 길이: 200자 원고지 4매 이내

라. 제출: 교회사무실

3. 선교옹변대회

가. 일 시: 6월 27일 오후 4시 30분

나. 원고마감: 6월 20일 오후 6시

다. 예선대회: 6월 26일 오후 4시(별관 4층)

라. 시 간: 어린이 4분 이내(6~8매) 중등부 5분 이내(7~10매)

고등부 6분 이내(9~12매) 대학이상 7분 이내(10~14매)

4. 안드레전도간중회

가. 일 시: 6월 26일(토) 오후 7시 30분

나. 장소: 유년부실

편집하고 나서

※...「충동원 전도의 달」, 6월을 맞으며 우리 교회 전도활동의 현황을 알아본다. 각 기관·지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전도의 모양과 방법들을 알아보았다. 비협조로 인한 취재상의 애로 속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교회 전도활동의 비체제화였다.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회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져 전도활동의 체계를 이룬다면 보다 효율적인 전도활동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내달부터는 우리교회 전도활동의 각 유형(類型)을 오대용 간사가 전달 취재·보도할 것이다.

※...무더운 여름을 맞으며 우리 이제부터 분주해진다. 각 주교 및 지회의 여름행사가 연이어 실시될 것이며 성경학원의 농어촌 지도자 초청 훈련, 평신도 훈련이 실시될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제부터 계획성있게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해의 행사를 묻어 보며 올해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준비는 매사에 필요한 것. 맘 흘리며 애쓴 보람은 철저한 준비에서 나타날 것이다. <형>

<표지설명>

당회는 새로운 선교지로 흥해지역과 흥공을 정했다고 한다. 일본 선교의 문이 막혀 애쓰던 우리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흥해지역과 흥공뿐이겠는가?

저 열려진 곳을 보라! 우리가 가야 할 저 넓은 곳을, 저 들과 저 산을 넘어 우리는 갈 것이다.

「망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곁에 있는 한, 우리는 갈 것이다. 우리의 앞에 열려진 「저, 저 망 끝까지!」.

월간「충현」 6월호·통권제30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종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6월 13일 발행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신록의 6월이 왔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성령강림과 전도로 시작되고 있다. 성령강림절 후의 6월을 우리는 「충동원전도의 달」로 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충동원」되어 명동으로, 남산으로, 서울역으로 뛰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칠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



◇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며 청년부에서는 11번째 경로회를 열었다. 5월 8일(토)에 열린 경로회는 우리교회에 출석하시는 70세 이상되시는 어른들이 150여명 참석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2일은 어린이주일, 9일은 아버지주일 등으로 지키었으며 또한 9일은 현렬하는 행사도 가져 「가정의 달」을 더욱 의미있게 보냈다.



◇ 4살짜리 꼬마로부터 70세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전교회적으로 실시한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5월 30일 오후에 열렸다. 「에베소서」 전장을 외우기로 한 금번 암송대회는 129명이 개인·구역·가족별로 참가하였는데 「에베소서」 전장을 외운 사람이 9명이나 나왔으며 상위 입상자는 지난 6월 6일 1·2·3부 대예배시에 시범암송을 하기도 하였다.

||||||| 지난 달 장로선거에서 피택된 분들 |||||



◇ 정 석 태

- 1926년 6월 12일생.
- 평북 용천 출생
- 현재 장년부 부감(집사).
- 부인 최봉숙집사와 슬하에 1남 1녀.
- 상업.



◇ 김 영 삼

- 1928년 12월 4일생.
- 경남 거제 출생.
- 집사.
- 부인 손영순 집사와 슬하에 2남 3녀.
- 천 신민당 출생



◇ 최 성 림

- 1938년 7월 25일생.
- 서울 출생.
- 현재 제직회 서기(집사)
- 부인 김번자 여사와 슬하에 3녀.
- 동신성유 근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참
떡은 인자 곧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자이니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느
니라.

그러므로 그 떡을 배불리 먹어 신자의 생활
을 튼튼히 하십시오. 그는 갈한 영혼을 만족
시켜주고시 주린 영혼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
시는 분입니다. 힘이 센 젊은 사자라도 주릴
때가 있건만 주를 경외하는 자는 아무 것에
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